

소외 지역에 야외 공공공간 우선 공급하는 'Outdoors for All Act' 추진

<https://www.asla.org/land/LandArticle.aspx?id=65324>

지난 4월 미국 하원에서 소외 지역의 야외 공공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Outdoors for All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공공의 토지와 수역 공간에서 다양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Expanding Public Lands Outdoor Recreation Experiences Act(EXPLORE Act)'의 패키지 법으로 함께 입법 추진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National Park Service)에서 운영 중인 'Outdoor Recreation Legacy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원 신규 조성 ▲기존 시설 개보수 ▲야외 교육, 공공부지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소외된 커뮤니티 내 야외공간 확충 ▲지역사회 청소년 역량 강화 ▲공원, 야외활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미국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ASLA)는 "야외공간에서 시간을 더 보낼수록 삶의 질(well-being) 또한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전국 지역사회에 따뜻하고 역동적이며 안전한 야외공간을 만드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shutterstock